

나의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믿음을 정금에 비유하는데 금과 믿음은 둘 다 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순전한 정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도금된 쇠붙이처럼 겉으로만 그럴 듯한 믿음인가요? 세 가지 분야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입술을 선하게 지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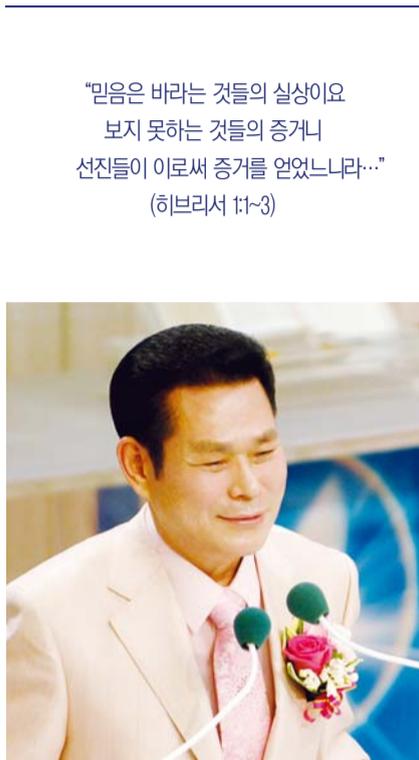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안목의 정욕을 좇아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삼하 11장). 이로 인해 다윗은 엄청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연단 중에 하나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 도망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심한 저주와 모욕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그를 죽이려는 용사들을 만류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임을 깨닫고 철저히 낮아지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편,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일족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죽고 나자 마치 다윗의 탓인 양 원망을 품었습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는 불만을 쏟아냈지요. 심지어 여호와 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알컬으며 있는 말, 없는 말, 떠오르는 대로 다윗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케네스 온갖 악을 입으로 쏟아냈지요.

평소에는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도 막상 시험 환난을 당하면 탄식과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 시므이처럼 누군가가 애매한 말로 비난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견비해지거나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악을 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더구나 시므이처럼 자기 악과 틀 속에서 상대를 판단 정죄하고 저주하는 악한 입술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하지요. 참으로 믿음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1-3)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가?

사도 바울의 권능이 매우 컸지만 엘리사의 권능도 대단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고 귀부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지요. 전쟁이나 사람의 생사화복도 그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끝까지 불쫓음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권능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그를 쫓아다니며 조롱하고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견디다 못한 엘리사가 저주의 말을 내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지요. 엘리사도 자기 말의 권세가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처음에는 못들은 척 아이들을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명이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히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저주의 말을 내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찌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은 엘리

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면서 위협을 했지요.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주하는 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지옥에 가도 좋다고 말했지요(롬 9:3).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영혼이 잘되고 구원받기를 원할 뿐이지요. 사람에게 따라서는 성품이 열정적이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참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할 때 참으로 믿음 있는 일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가?

요셉은 17세 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간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지만 그 섭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며 성실로 직무를 삼았지요. 세월이 흘러도 희망은커녕 더 쪼이거만 하는 것 같았지만, 요셉은 결코 하나님 섭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마음이 변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시든지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후회나 변개함이 없지요. 처음에 순종하려던 마음이 자기 생각에 안 맞고 힘들니까 변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 중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영혼 사랑함과 순종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믿음에 이르러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신

권능의 무안단물 11주년 기념예배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이 된 무안단물 11주년 기념예배를 지난 3월 3일, 무안단물터가 위치한 무안 만민교회(담임 김명술 목사)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서삼석 무안군수를 비롯한 무안군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감사 이미영 목사(3대대교구장)의 설교(제목: 사랑) 뒤, 예능위원회 크리스탈심어즈와 새렘국악선교단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어 권능의 단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필리핀 세부 만민교회 창립예배

필리핀 세부 만민교회(담임 성숙 목사)가 지난 3월 6일 주일, 18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성도들은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세부 만민교회는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방송을 통해 우리 교회와 동시에 주일예배와 금요철야예배를 드리며, 다나엘철야에도 동참하고 있다.

포토뉴스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학원대회



2003 러시아 연합대성회

“닛시오케스트라 창단 19주년 맞아”

지난 3월 6일 주일 저녁예배 시 닷시오케스트라(지휘 조관형 피터장로)가 본당에서 창단 19주년을 맞아 특별 연주로 영광 돌렸다. 이날 닷시오케스트라는 ‘천사들의 무용 2’를 연주했다. 1992년 3월 1일 창단된 닷시오케스트라는 해외 성회 및 국가연례조찬기도회를 비롯해 교계 연합행사, 자선 음악회 등 연주를 통해 복음 전파와 기독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난·청년·배울·미리애]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나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